

9·13 부동산 규제, 대출 만기연장엔 적용 안해

금융당국, 세부지침 금융社 통보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만 영향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 대출 차단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대출 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도 현재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받지 않는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9·13 대책 내용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생활안정자금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출에 해당할 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L

TV 규제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최대한 열어뒀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에 1~3년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임대업대출 LTV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민기가 연장된다. 이때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민간 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1억원으로 설정된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 더 많은 실수요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책브리핑

韓·中 어업공동위

제1차 준비회담 개최

우리나라가 중국과 내년도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제18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이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농업부 어업여정관리국 유신중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해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방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산업부

온라인 해외판매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쇼핑관광 축제인 '2018년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 기간 중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G)마켓 글로벌, 오피케이디지지(OK DGG) 등 국내 역직구몰 4개사와 타오바오(중국), 라쿠텐(일본) 등 11개국 24개 해외현지 유명 쇼핑몰이 참여해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해외에 알리고 한류상품 할인 판매 등 행사를 진행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식사이트에는 주요 언어별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참여기업들도 메인배너광고, 자체 사회관계망(SNS)홍보, 별도 할인행사 페이지(한국관 등) 개설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올해 최고 품질 김치 브랜드로 '남도미가'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김치품평회'에서 주왕인식품의 '남도미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해 우수 김치브랜드를 선정·발표해 오고 있다.

김치품평회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김치관련 전문가 10명과 소비자 패널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자자체 및 김치업체가 추천한 19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맛,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 농업연계성 등에 대해 서류평가, 관능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6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금수저' 임대업자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대상 착수

가족 등 주변인 자금출처 조사 병행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짐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 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 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 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죄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 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 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 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000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

사상 최악의 폭염에 가전제품 판매 '역대급'

7월 소매판매액 통계 역대 최고치

올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냉방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전제품 판매 액마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7월 소매판매액 통계 가운데 '재벌 및 상품군별 판매액지수'를 보면 가전제품의 불변지수는 189.1을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판매액지수는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해당 월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수치다. 불변지수는 판매액지수 중 경상지수의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7월 가전제품 판매액은 2015년 평균의 1.8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기존 최고는 작년 7월의 168.6이었



전자랜드를 방문한 고객들이 에어컨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다. 불과 1년 만에 지수가 20.5p 뛰면서 새 기록을 쓴 것이다. 통계청은 기록적인 가전제품 판매 증가의 이유로 판매 시장 가장 높았던 올 여름 기온을 꼽았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냉방제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쪽방촌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민간 맞손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民間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와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 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 기관이 교육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마을 노후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 등을 후원한다. 해비타트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담당한다.

올해 사업지는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 대지구·영주 관사골 등이다. 전주시 승암마을의 경우 최대 경사 62.5도의 사면 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